

지스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해양 문제 다룬 미디어작품 전시

- 2021바다미술제 참여... 인공지능과 전통설화를 엮어 만든 이야기를 시각화한 작품 '오션머신' 공개



▲ 오션 머신(The Ocean Machine), 2021 일광해수욕장 설치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소장 전문구) 연구팀(책임자 김안나 연구원)은 해양 오염문제를 다룬 영상작품 '오션 머신(The Ocean Machine)'을 '2021바다미술제'에서 선보인다.

'오션 머신'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과 전통설화 속 용신부인 이야기를 접목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팀은 해양 오염에 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 언어 생성 인공지능을 사용한 참여성 인터랙션 스토리텔링 작품을 지난해부터 연구해왔고 이의 연장선으로 이번 작품을 제작하였다.

인공지능이 발명품의 생김새와 작동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묘사를 출력하고,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오션 머신'이라는 발명품을 시각화 했다. 해양생물과 기계가 결합된 형태의 '오션 머신'은 우리나라 전통설화 속 용신부인과 공생하는 관계를 맺으며 해양 플라스틱들을 제거한다.



▲ 오션 머신(The Ocean Machine), 2021 스틸컷

'2021바다미술제'가 일광해수욕장을 무대로 작품과 조명에 주안점을 둔 미술제인 만큼 미디어 작품인 '오션 머신'은 특히 밤에 더 빛을 발한다. 일광천 옆 해맞이빌 건물 외벽에 대형 프로젝트 맵핑을 실현해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볼 수 있으며,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전문구 소장은 "이번 작품은 우리 연구소에서 지향하는 인공지능 IT기술과 우리나라 전통 이야기에서 소재를 접목하여 현실의 문제를 잘 반영한 미디어 작품"이라며, "가상현실을 통해 인간, 기술, 자연이 연대하고 공생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와 부산비엔날레조직회가 공동주최하는 '2021 바다미술제'는 '인간과 비인간: 아상블라주(NON-/HUMAN ASSEMBLAGES)'를 주제로 13개국 36명의 작가가 참여해 22개의 작품을 11월 14일까지 선보인다.